

번역의 방법

川本浩嗣·井上 健 編 | 이현기 옮김

tra(ns)latio, ónis, f. [tránsfero] 1.

옮겨감, 이전(移轉); 옮겨 심음, 이식, 접목
(책임)전가. 다른이에게 돌림. 3. (修)
(轉義), 번역, 바꿈, 변화, 전위법(轉位法)

翻訳 (ほんやく) 번

번역의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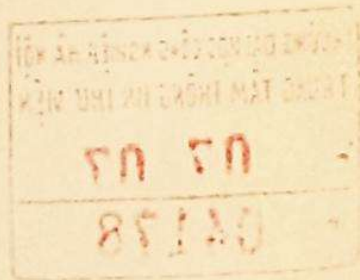
『翻訳の方法』

川本浩嗣·井上健 編



고려대학교 출판부

『翻訳の方法』



川本浩嗣・井上 健 編

『翻訳の方法』

The Art and Craft of Translation
Koji KAWAMOTO and Ken INOUE Editors
University of Tokyo Press, 1997

ISBN 4-13-083024-4

이 책은 다년간 번역에 종사해 오거나 강단에서 번역가 양성을 담당해온 또는 그 양자를 겸한 전문가 20여명이 각자의 경험과 지식에서 얻은 착안점, 요령, 강조하고 싶은 점들을 잘 정리하여 소개하고 있어, 독자 여러분께서 번역에 관련된 문제들을 깊이 고찰하시거나 번역의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실 때 많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이 책은 주로 영문을 일본어로 번역하는 전문가가 영문을 일본어로 번역하는 입장에서 쓴 것이고 실례로 든 예문도 거의가 영문과 일본어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다음 두 가지 점에서, 한국의 독자 여러분이 번역에 관한 이론과 실제의 양면에 걸친 지혜를 얻는 효과를 조금도 감소시키지 못합니다. 첫째는 영어에 대비하여 볼 때, 한국어와 일본어가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에 영문의 일본어로의 번역에서 부딪치는 문제는 한국어로의 번역에서 부딪치는 문제와 거의 일치한다는 점이고, 둘째는 번역의 본질과 기술에 관한 일반론적인 것은, 그 성격상 영문과 일본어 사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언어들 사이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에서 번역되는 문헌과 서적의 종류와 양에 있어서, 영어와 일본어의 그것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생각할 때, 이 책이 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는 100%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번역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거의 모든 문제를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의미하고 있는 것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번역이라는 작업은 대학 교양과정까지에서 하는 식의 영문 해석 능력을 확고하게 갖춘 이후에도, 수련을 쌓아야

할 범위와 수준이 엄청난, 고도의 전문 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책의 또 하나의 특징은 번역의 실례로서, 동일한 영어문장을 수준과 전문을 달리하는 다섯 사람이 각각 번역한 문장과, 각각 번역하면서 부딪혔던 문제와 착안점의 해설을 비교해 볼 수 있게 한 점입니다. 이것은 독자 여러분의 번역 스타일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좋은 거울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 명의 필자에 의해 쓰여진 내용과 문체가 각각인 글을 모은 이 책을 번역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작업은 아니어서, 역자 스스로도 번역의 어려움이 여러 가지 문제에서 복합적으로 유래하는 것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작업을 하는 과정에 자신의 박사 논문 마무리에 경황이 없는 중에도 타자와 교정 등으로 많은 도움을 준 박연정 박사에게 감사드리며, 고려대학교 대학원에 재학중인 조경, 이혜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책을 번역할 기회를 주신 고려대학교 출판부에도 사의를 표합니다. 특히 교정 등 많은 문제를 남겨 놓은 채, 장기 해외 출장에 나와 있어 출판부의 여러분에게 적지 않은 심려와 불편을 끼쳤지만, 끝까지 참아주시고 출판되도록 성의와 노력을 다 해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 4월
이현기

이 책의 목표 : 번역과 영어

이 책은 영어를 통하여 번역을 생각하고, 번역을 통하여 영어를 생각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방법」이라 이름붙인 이상에는 고도의 추상론을 전개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교실이나 일터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영어의 독해나 번역의 문제들에 대하여 하나의 명확한 시각을 제시하고, 착실하고 효과적인 해결지침을 제시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언어와 문화가 맞바로 만나는 번역은 이문화異文化 접촉의 최전선最前線입니다.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떤 무기나 책략도 가릴 것 없이 닥치는 대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이 싸움의 현장에도 무언가 일관된 「방법」이나 전략을 들여 올 수는 없을까? 독자와 더불어 그 점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의 영어 텍스트를 재료로 하여 탐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번역은 보통의 의미의 번역 — 출판이나 공표公表를 목적으로 하는 완성된 번역문의 작성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더 넓은 의미로 일본인이 일본어를 통하여 영어를 정확히 이해하는 일까지도 번역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아니,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영어 실력이 상당하여 일본어 등을 개입시키지 않고 직접 영어를 독해할 수 있는 경우에도 두 개의 언어나 동서문화의 커다란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역시 상당히 복잡한 배려나 조작이 필요합니다. 그와 같은, 이른바 「문화의 번역」이라는 과정까지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서의 영어 텍스트의 독해 자체를 번역이라 일컬으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그럴 경우의 토대, 모든 출발점을 대학에 갓 입학한 학생의 영어 실력에 두기로 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은 중학교 이래 적어도 6년간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동안에 익힌 공통의 지식, 방대하고 확실한 지식을 그 후에도 활용하고 더욱 연마하지 않고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책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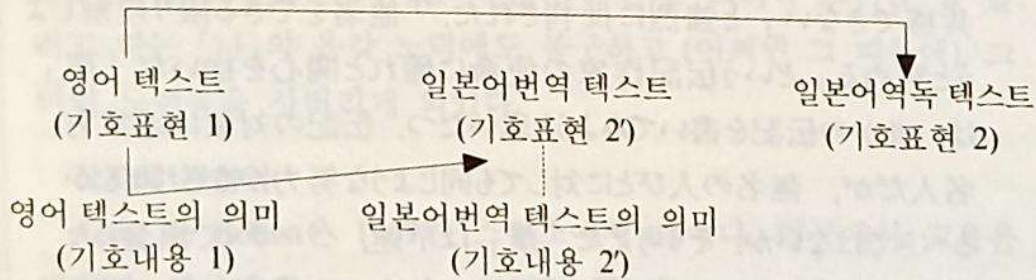
그런 관점에서, 이 책은 넓은 의미로서의 영어의 「번역」에 초점을 맞추면서 먼저 「입시영어」가 일본인의 보편적인 영어능력과 관련시켜 볼 때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를 보고, 또 고도의 영어능력 양성의 토대로서 「학교문법」과 「역독譯讀」을 적극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제 I 부). 수험생은 시험에서 마구 감점당하는 일이 없도록 가능한 한 「정확」하게 영어를 일본어로 바꾸어 놓기 위한 고도의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대학 수업에서 역독譯讀하도록 지목받았을 때, 지금 자네가 번역한 문장은 대체 어떤 의미인가라고 교수에게 질문받으면 어찌할 바를 모르는 학생이 의외로 많으며 그런 것은 생각해 본 적도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즉 수험용 번역에 필요한 것은 극히 표면적인 의미의 독해뿐이어서 보다 깊은 의미의 이해, 독자 개인이 스스로 파악하는 이해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역독이란 영어 텍스트 = 기호표현 1을, 그대로 일본어 텍스트 = 기호표현 2로 바꾸었을 뿐, 그 의미 = 기호내용 1과는 거의 상관이 없는, 말하자면 그냥 지나쳐 버리는 과정입니다. 역독의 기술은 매우 유용하지만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서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영어를 배우는지를 모르게 됩니다.

제 II 부에서는 그런 과정에서 그냥 넘겨버린 의미의 해독에 관하여

생각해봅니다. 즉 영어 텍스트 = 기호표현 1에서 그 의미 = 기호내용 1을 해독하는 과정입니다. 이때의 독해는 바로 영어로 행하여지는 경우도 있고 또 일본어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튼 여기서, 영어 텍스트와 일본인 독자 사이에서 적극적·동적인 대화가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특히 대학 1, 2학년 학생에게 도움이 될 듯한 포인트를 몇 가지로 간추려서 해설하겠습니다.

제Ⅲ부는 그렇게 하여 이해한 의미를 알기 쉽고, 효과적인, 아름다운 일본어로 옮기는 작업을 다루겠습니다. 영어 텍스트의 의미 = 기호내용 1을 일본어 텍스트 = 기호표현 2'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번역(기호표현 2)과 일반독자를 염두에 두는 번역(기호표현 2')과의 차이가 여기서 분명해집니다. 또 영어의 본래 의미 = 기호내용 1과 그에 입각한 일본어 역의 의미 = 기호내용 2'를 얼마만큼 접근시킬 것인지, 얼마만큼 거리를 두는 것이 괜찮겠는지도 여기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제Ⅳ부에서는, 번역에 관계되는 역사적歷史的·원리적原理的인 여러 문제들을 한걸음 더 파고들어 생각합니다. 여기서도 화제를 중요한 여섯가지 점으로 한정했는데 여섯편의 논문은 모두 영어의 번역을 논하는 것이 곧바로 「문화의 번역」의 가장 미묘한 측면, 지금이야말로 진지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문제점의 제기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Ⅰ부와 제Ⅲ부의 후반에는 영어의 번역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각 방면의 전문가가 동일한 영문텍스트를 번역한 다음, 그것을 번역하면서 고심한 점, 조심해야 할 점을 해설하는 「번역의 실천」의 마당을 마련하였습니다. 역자 여러분께는 다음과 같은 코멘트와 함

께 아래 텍스트를 보내드렸습니다. 다만 일본어역을 부탁드립니다. 영문의 제1, 제2단락뿐입니다(이 코멘트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東京大學 大學院 総合文化研究科 地域文化研究 専攻 학생인 구로야나기 가즈요 畔柳和代씨의 협력을 얻었습니다).

Alain de Botton, *Kiss & Tell*(1995)에 관하여

一言でいえば

無名人の伝記を書くという行為と, 恋愛問題を組み合わせた小説で, 伝記というジャンルをめぐる小説でもある.

あらすじ

イザベル・ロジャーズ(25歳, 一庶民)の伝記という体裁をとった小説.

語り手「僕」は, 元恋人から「あなたはナルシストで他人に共感できない」と強烈に批判された。「他者をできる限り理解しようと努める」という伝記作家の使命に憧れと関心を抱いた「僕」は, 誰かの伝記を書いてみようと思いついた. 伝記の対象は通常有名人だが, 無名の人びとに対しても同じような努力がなされてしかるべきではないか. そう考えた「僕」は早速, パーティで出会った女性イザベルの取材を開始する. 生い立ち, 家系図, 思い出の曲, かつての恋愛等々の話を聞く過程で, 「僕」は彼女に恋してしまう. だが, 彼女をよく知ろうという「僕」のさまざまな工夫にもかかわらず(もしくはそのために), 彼女の怒りをかってしまうのだった.

作者について

Alain de Bottonは1969年スイスに生まれ, イギリスで教育を受ける. 著書に*Essays in Love* (1993), *The Romantic Movement* (1994), *Kiss & Tell* (1994)があり(いずれも小説), 恋愛をめぐる諸問題を擬似哲学的・パロディ的文体で語るが多い.

한마디로 말하자면

무명인의 전기傳記를 쓰는 행위와 연애문제를 엮어 넣은 소설로, 전기라는 장르와 관련된 소설이기도 하다.

대강의 줄거리

이자벨 로저즈(25세, 한 서민)의 전기라는 체제로 된 소설.

화자話者인 「나」는 전 애인으로부터 「당신은 나르시스트여서 남에게 공감하지 못한다」라는 강렬한 비판을 받았다. 「타자他者를 가능한 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라는 전기작가의 사명에 동경과 관심을 갖게 된 「나」는 누군가의 전기를 써 보려고 마음 먹는다. 전기의 대상은 통상 유명인이지만, 무명인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노력이 기울여져야 마땅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 「나」는 곧 이어 파티에서 우연히 만난 여성 이자벨에 대한 취재에 들어간다. 성장과정, 가계도, 추억의 곡목, 과거의 연애 등등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 「나」는 그녀를 사랑하게 된다. 그러나 그녀를 잘 알고 싶어 하는 「나」의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 때문에), 그녀의 노여움을 사버리게 되었다.

작자에 관하여

Alain de Botton은 1969년 스위스에서 태어나, 영국에서 교육을 받았다. 저서에 *Essays in Love*(1993), *The Romantic Movement*(1994), *Kiss & Tell*(1994)이 있고(모두 소설), 연애를 둘러싼 문제들을 의사철학적擬似哲學的·패러디적 문체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텍스트

Whatever one's experience of this globe and its inhabitants, however impartial one's judgement and varied one's acquaintance, it would be no surprise if the most enchanting person one had yet encountered, someone whose tastes in love and literature, religion and recreation, dirty jokes and household hygiene all lay beyond reproach, whose setbacks were capable of eliciting inexhaustible concern and pity, whose dawn halitosis was the grounds for no quite shudder and whose view of humanity seemed neither cruel nor naïve — one might

without presumption suggest this person to be none other than oneself. However gloomy the thought may strike those of ethical disposition,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letting it bubble discreetly in one's mind while squeezing an orange or skimming through channels of late-night television and hearing it confirmed in the fury of another's accusation, along with a couple of vases sent crashing to the ground to emphasize the point.

The charm of self-inflicted insults comes in knowing how far to dig the knife and, with a surgeon's precision, how to avoid the rawest nerves. It is as harmless a sport as trying to tickle oneself. When Elton John sang a beautiful love song in which he lamented to his beloved, in the well-worn tradition of singers and moist-eyed poets, that he only wished his art could do justice to his ardour ['Your Song', 1969], we would be foolish to suppose that he doubted his talent for even a moment. The ability to deprecate his musical skill was premised on an apparently humble but profoundly arrogant belief that he had in fact written something of a gem. As Dr Johnson remarked of these self-administered insults, they are a pleasant sport for they allow a man [aphorisms appear to find no room for women until at least the middle of the twentieth century] 'to show how much he can spare'. What musical confidence it must take to sing melodiously one has not a jot of it. What greater assurance could one attain than casually to spare the thought one is a self-centred churl? Johnsonian deprecation appears as a branch of the cocksure, 'Look, Mum, no hands' cycling boast, in which the need to keep a firm grip on the handlebars of self-respect can temporarily be relaxed, so one can freewheel down the hill shouting merrily, 'I'm such a lousy singer,' and 'Oh, what a brat I am.'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텍스트는, 현대 영국소설에서 따온 것으로, 어조에 미묘한 아이러니를 내포한 꽤 까다로운 영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대학 1, 2학년생의 실력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다양한 목적이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번역의 뛰어난 견본으로서 여러분이 참고하도록 제공하는 것입니다. 숙달된 솜씨를 맛보십시오. 그리고 잘된 학생의 답안도 하나 첨부했습니다.

목 차

윤킨이 서문	李賢起	i
책머리에	川本皓嗣	iii
序章 — 일본인의 영어능력	川本皓嗣	1

I — 譯讀이라는 제도

필요악으로서의 학교문법	井上 健	15
英日辭典 활용법 — 추상어를 번역한다	菅原克也	31
입시영어란 무엇인가?	牛村 圭	45
번역의 실천 1	高橋克美	62
번역의 실천 2	西山達也	65

II — 譯讀에서 解讀으로

영어의 여성어 — 젠더(gender)와 경어敬語	新井潤美	71
외래어의 여운	川本皓嗣	84
英英辭典 활용법 — 역사적 텍스트를 번역한다	丹治 愛	101
행간의 <경향>을 해독한다	能登路雅子	118

Ⅲ — 번역의 현장

올바른 번역이란?	大澤吉博	141
소설의 번역 — 일본어의 특기特技	小川高義	158
논문의 번역 — 그것은 논문이 아닌 것의 번역과 같다	佐藤良明	172
기계번역이 무엇을 할 수 있나?	辻井潤一	189
번역의 실천 3	柴田元幸	206
번역의 실천 4	行方昭夫	209
번역의 실천 5	天馬龍行	212

Ⅳ — 문화의 번역

한문훈독과 영문해석 — <영문훈독> 숙명론	古田島洋介	217
직역에서 「초역超譯」으로	小谷野敦	237
서로 투영하는 두 개의 텍스트 — 영역된 『雪國』	エリス 俊子	250
철학용어의 번역	門脇俊介	267
번역의 기호론 — 허구로서의 언어	山中桂一	282
번역이라는 실천의 정치성	小森陽一	300

후기	井上 健	315
----------	------	-----

집필자 소개		321
--------------	--	-----

이 책은, 번역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거의 모든 문제를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의미하고 있는 것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번역이라는 작업은 대학 교양과정까지에서 하는 식의 영문 해석 능력을 확고하게 갖춘 이후에도 수련을 쌓아야 할 범위와 수준이 엄청난, 고도의 전문 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의 또 하나의 특징은, 번역의 실례로서 동일한 영어문장을 수준과 전문을 달리하는 다섯 사람이 각각 번역한 문장과, 각각 번역하면서 부딪혔던 문제와 착안점의 해설을 비교해 볼 수 있게 한 점입니다. 이것은 독자 여러분의 번역 스타일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좋은 거울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 ‘옮긴이 서문’ 중에서

ほんや

ほんやく

tra(ns)latio, ōnis, f. [trānsfero]
 옮겨감, 이전(移轉); 옮겨 심음, 이식,
 (책임)전가, 다른이에게 돌림. 3. (轉義), 번역, 바꿈, 변화, 전위법(轉位)

translator, translator
 (轉譯), 번역, 바꿈, 변화, 전위법(轉位)
 traducteur [trādaktœr] m. [trānsfere]
 (轉譯), 번역, 바꿈, 변화, 전위법(轉位)

翻訳 (ほんやく)

TRƯỜNG ĐẠI HỌC CÔNG NGHỆ
 TRUNG TÂM THÔNG TIN



Mã sách: 070704178

94730



9 788976 414182

ISBN 89-7641-418-7
 ISBN 89-7641-417-9 (세트)

값 13,000원